

광주, 미래차 부품 생산거점으로 도약한다

LG이노텍과 1000억원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2028년까지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라인 구축

광주시가 LG이노텍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차·전장 사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LG이노텍과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손두영 인공지능 산업실장과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유병국 모빌리티부선사업부장 전무, 조백수 경영지원담당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광주사 업장에 차량용 제어모듈(AP모듈)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해당 생산라인은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차량용 AP모듈(Application Processor Module) 전용 생산설비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생산라인은 완공되면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의 전체 연면적은 9만7000㎡ 규모로 확대된다.

차량 AP모듈은 LG이노텍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로,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컴퓨터의 CPU와 해당하는 이 모듈은 차량 내부에 탑재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디지털 콕핏 등 각종 차량 전자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AP모듈 생산 규모는 올해 3300만개에서 2030년 1억30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22%에 달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AP모듈 공급을 시작했으며, 추가 고객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도 병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 감면,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G이노텍 광주사업장이 모빌리티 부품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미래차·전장·인공지능 실증도시 전략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제어모듈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확산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핵심 부품으로,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적 혁신을 동시에 이끌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직접 고용 효과는 30명 수준이지만, 연관 산업과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며 "LG이노텍과의 이번 투자협약은 '부강한 광주 원년'을 알리

는 신호탄이자, 광주가 규제 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광주사업장은 1985년 준공 이후 LG이노텍 모빌리티 사업의 '마더 팩토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전략적 요충지인 광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회사들과 동반 성장하고,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과 차량용 제어모듈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삼성전자, '갤럭시 크루 2026' 발대

갤럭시 사용 경험·노하우 SNS 콘텐츠로 제작·소개

협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크루'가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서 갤럭시 제품과 AI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갤럭시 크루'는 2024년 20여명, 2025년 60여명 규모로 시범 운영됐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더 많은 갤럭시 팬들과 소통하고 갤럭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갤럭시 크루 2026'을 공식 운영하기로 했다. 정승기 기자 sky@

광주경총, 1월 금요포럼 AI·소통 리더십 조명

16일 박문호 박사·23일 조영근 원장…미래경영 해법 모색



광주지역 대표 경제인단체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인공지능(AI), 소통 등 다양한 주제로 1월 금요조찬 포럼을 펼친다.

13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1월 금요조찬 포럼은 지난 2일 광주·전남 10개 경제단체·기관 공동 신년인사회와 9일 강기정 광주시장 특강 일정으로 인해 총 2회로 축소 운영하며 오는 16일과 23일 출판인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16일 진행되는 제170회 포럼에서는 공의시단법인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이사장인 박문호 박사가 '미래경영과 AI'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박 박사는 기술 자체보다 이를 활용하는 리더의 역할 변화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짚을 예정이다.

테كس A&M대 전자공학 박사 출신인 박 박사는 과학 대중화 강연과 온라인 채널 '박문호 TV'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독서 공동체 '백북스' 공동운영위원장장을 역임했다.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과 '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 수상했으며 '뇌, 생각의 출현', '박문호 박사의 비히 스토리 공부', '그림으로 읽는 뇌과학의 모든 것'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다.

23일 제171회 포럼에서는 하이터치 경영연구원 원장인 조영근 박사가 '감성 경영과 소통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다.

조 원장은 유튜브 채널 '조영근 TV'를 운영하며 11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지도교수로 활동 중이다. 조 원장은 선황경영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경영·리더십 강연을 진행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나인 레버', '나도 성공하고 싶다', '설계사 혁신 전략' 등이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지나 2026년 복년을 맞아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치·규제 리스크와 함께 AI 도입과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기업의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 네이티브 조직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과 감성경영, 소통리더십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제네시스, 고성능 'GV60 마그마' 출시

최초 고성능 모델로 최고 시속 264km… 9657만원



제네시스가 13일 우수한 퍼포먼스와 정제된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출시했다.

멈춰선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속도를 높이는 제로이백(0~200km/h) 시간이 10.9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264km에 이른다.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중 가장 우수한 동력성능이다.

도 84%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산업

부 인증 완료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346km, 복합 전비 3.7km/㎾h로 일상에서도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GV60 마그마의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9657만원이다.

GV60 마그마는 합산 최고 출력 448㎾(609마력), 최대 토크 740Nm의 강력한 전·후륜 모터가 탑재됐으며, 부스트 모드

www.global-dh.com

DH 글로벌